

## 육군 부대마크 디자인의 기호학적 의미에 관한 연구

대한민국 육군 42개 사단의 부대마크를 중심으로

A Study on Semiotic Meaning of Unit Patch Design of the Republic of Korea Army  
Focusing on Unit Patch Design of 42 Divisions of the Republic of Korea Army

주 저 자 : 성언제 (Sung, Eon Jea) 한양사이버대학원

교신저자 : 엄기준 (Um, ki Joon) 한양사이버대학원 / 1060022@hycu.ac.kr

## Abstract

During the process of the creation of 8 divisions of the Republic of Korea Army in 1949, unit patches were made and used by attaching them to the left upper arm of the combat uniform in order to identify the wearers' unit by division. The style has been applied thus far. Subsequently, many units have been created, and unit patches were created and used to infuse each unit with characteristics, ideologies, and values. However, unit patches were arbitrarily made according to the opinions and tendencies of people who were in service at the time when they were made without clear criteria. Therefore, it is considered possible to derive general tendencies by analyzing the shapes and colors of unit patches that have ever made. Thus, this study was initiated. This study classified unit patches of 42 divisions of the Republic of Korea Army based on changes according to semiotic types, shapes, colors, and passage of time and then derived the semiotic meaning through the results by classification item. As a result, most of them are characterized by the symbolic type, shield and round shapes, and bluish colors on a white background. In addition, recently establish units are more likely to use unit patches with shield shape and index type in numbers. It is considered possible to use these results as reference materials when changing or designating unit patches in the future. Furthermore, these results show how to change unit patches associated with future changes in the Republic of Korea Army.

## Keyword

semiotic, unit patch design, symbol, mark

## 요약

1949년 육군의 8개 사단이 창설되면서 사단별로 소속을 표시하기 위해 부대마크를 만들어서 전투복 왼쪽 팔 상단에 부착하여 활용하였으며, 현재까지 그 방식을 적용해 오고 있다. 이후 많은 부대들이 만들어지면서 그 부대의 특성과 부대가 추구하는 이념과 가치관을 담아서 부대별로 부대마크를 만들어서 활용해 오고 있다. 그러나 부대별로 만들어서 활용하다보니 명확한 기준이 없이 당시 근무한 사람들의 의견과 성향에 의해서 부대마크들이 만들어졌다. 때문에 현재까지 만들어져 있는 부대마크들을 형태나 색상적인 면에서 분석해보면 일반적인 성향들을 도출할 수 있을 것이라 판단되어 연구를 시작하였다. 이에 본 연구는 육군 42개 사단의 부대마크들을 기호유형, 형태, 색상, 시간적 흐름에 따른 변화를 기준으로 분류하여 각 분류항목별 결과를 통해 의미를 도출하였다. 분석결과 기호유형에서는 상징형, 형태는 방패형과 원형, 색상은 흰색 바탕의 청색 계열이 많았으며, 최근에 생긴 부대일수록 방패형태이며, 숫자를 소재로 한 지표형의 부대마크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분석결과들은 이후에 부대마크를 변경한다거나, 새롭게 제정할 때의 참고자료가 될 수 있을 것이라 판단되며, 앞으로의 육군의 변화와 연계되어 어떤 식으로 변경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방향을 제시할 수 있었다.

## 목차

### 1. 서론

- 1-1. 연구 배경 및 목적
- 1-2. 연구 성격 및 방법

### 2. 이론적 배경

- 2-1. 부대마크의 개념
- 2-2. 부대마크의 기원
- 2-3. 육군의 사단별 부대마크

### 3. 부대마크의 디자인적 요소 분석

#### 3-1. 기호유형 분석

#### 3-2. 형태 분석

#### 3-3. 소재 분석

#### 3-4. 색상 분석

#### 3-5. 시간적 흐름에 따른 변화 분석

### 4. 부대마크의 의미와 디자인 상관관계 분석

### 5. 결론

### 참고문헌

## 1. 서론

### 1-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우리나라는 해방이후 한반도가 분단되고 치안이 혼란에 빠지자 미군정의 영향을 통하여 1948년 대한민국 정부수립과 동시에 정식으로 육군이 창군되었다. 이후 1949년 8개의 사단이 창설되었으며, 이후 6·25 전쟁을 겪으면서 많은 부대들이 생겨 현재는 42개의 사단을 비롯한 많은 부대들이 유지되고 있다.

육군의 부대들이 확충되어 가는 과정에서 장관급 지휘관이 지휘하는 부대별로 해당 부대 특성과 추구하는 가치관 등을 담아 부대마크를 제정하였으며, 이를 부대원들에게 소속감을 고취시키고, 자기 부대에 대한 자긍심을 심어 주는 용도로 활용하고 있다.

기업의 경우 자사의 CI를 활용해서 대내적으로 그 기업만의 개성있는 기업문화를 형성하고 적극적인 커뮤니케이션 활동을 통해 자사에 대한 의식 또는 체질을 개선함으로써, 보다 나은 경영환경과 공동체 의식을 강화하고 있다. 그리고 21세기의 정보화 시대에 들어와서는 CI가 기업의 전략적 커뮤니케이션의 핵심이 되면서 그 중요성이 더욱 높아졌다.

그리고 시대가 변화함에 따라 기업의 이념도 변화하고, 그에 따라 기업의 CI도 변화하고 있다. 그러나 육군의 경우 대부분의 부대가 부대별로 창설 당시의 추구 이념과 가치관을 담은 부대마크를 아직 그대로 사용하고 있다.

육군의 부대마크는 소비자와 기업 간의 커뮤니케이션이 우선되는 기업의 CI와는 달리 내부 구성원들과의 커뮤니케이션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특징이 있어 외부환경 변화에 인색한 경향이 있다.

육군은 인구감소의 영향으로 발생한 병력감축이라는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첨단무기 배치, 부대 개편 등의 계획을 수립/추진하고 있다. 이에 따라 부대 개편을 통해서 지금 유지되고 있는 사단급 부대는 사라지고, 여단급 부대로 재편될 예정이다. 때문에 지금 활용되고 있는 사단급 부대마크의 변화는 당연히 받아들여야 과제이다.

그러므로 본 연구는 이런 시대적 환경을 고려하여 현재 42개 사단별로 활용하고 있는 부대마크에 대한 디자인적 요소의 분석을 통해 의미를 도출하고 이후 부대마크 개선사업을 하는 데 있어 기여하는 것에 그 목적이 있겠다.

### 1-2. 연구의 범위

이 연구는 육군의 89개 부대 중 사단급 부대인 42개 부대의 부대마크를 연구대상으로 선정하였으며, 선정 이유는 육군의 사단급 부대가 육군을 대표하는 대표성이 있으며, 육군의 부대 중에서 역사가 깊은 부대가 대부분 사단이기 때문이다. 또한 2014년 발표된 국방개혁 기본계획에서의 주요 개편 대상 부대가 육군의 42개 사단임에 이후 사단들의 부대마크가 개편될 때 본 연구가 참고가 될 것이라 판단된다. 참고사항으로 육군은 사단의 명칭을 부여할 때 숫자 '4'는 부정적인 의미 때문에 사용하지 않는다.

그리고 이 연구는 ①<고찰(제1장)> : 이론적 배경, ②<분석(제2장)> : 부대마크의 디자인적 요소 분석 ③<분석(제3장)> : 부대마크의 의미와 디자인 상관관계 분석 ④<결론>의 네 단계로 이루어진다.

<제1장>에서는 육군의 부대마크 정의와 기원, 육군 42개 사단별 부대마크에 대한 형태와 내포되어 있는 의미 등에 대해서 알아본다.

<제2장>에서는 육군의 42개 사단별 부대마크에 대해서 퍼스의 기호유형, 형태, 색채, 시간적 흐름에 따른 변화를 기준으로 분류해본다.

<제3장>에서는 <제2장>에서의 분류를 통해 도출된 디자인적 요소별 의미에 대해 분석해본다.

마지막 <결론>에서는 위의 고찰과 분석을 토대로 하여 육군 부대마크의 개선 방향에 대하여 결론을 내린다.

## 2. 이론적 고찰

### 2-1. 부대마크의 개념

군인이 자신이 소속도니 부대를 나타내기 위하여 착용하는 엠블럼이다. 군복 이외에 군기(軍旗)등 해당 부대를 나타내는 데에도 사용된다. 한자 표현으로 부대표지(部隊標識)라고도 한다. 군내부에서는 부대표지가 정식용어나 다들 부대마크라고 부른다. 보급품수령 확인서나 군수과에서 쓰는 프로그램 같은 데에서는 부대표지라고 표기되어 있다.

부대마크는 보통 사단 단위로 있으며 일부 독립여단도 부대마크가 있다. 아전군, 군단의 사령부에 소속된 군인들은 각각 아전군, 군단 단위로 부대마크가 있다. 아전군은 아라비아 숫자로, 군단은 로마숫자(수도군단,

6군단 제외)로 해당 부대마크가 표기되어 있다. 공군은 비행단 예하 전대와 대대급에도 전용 마크가 있다.

기본적으로 대한민국 국군에서는 육군만 전투복에 부대마크를 단다. 대한민국 국방부 직할부대(국직부대)와 합동참모본부, 해군, 공군, 해병대는 군복에 부대마크를 부착하지 않는다. 대신 함정, 항공기에 소속 부대마크를 그려 넣는다. 육군으로 입대해도 국직부대로 가면 부대마크가 없다.

그리고 해군 해난구조대와 해군, 공군 조종사 등 비행복을 착용하는 인원은 부대마크를 부착하며, 한미연합군사령부, 국군지휘통신사령부 같은 일부 부대에 근무하는 해공군 및 해병대 소속 군인들도 부대마크를 전투복에 부착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해공군 및 해병대의 근약대나 의장대 소속 장병의 경우는 부대마크를 대신하는 부착물을 전투복에 달고 있다.

최근까지 저시인성과 동일한 크기의 원색 부대마크를 상기 언급한 육군 부대들 위주로 정복과 근무복에도 달았으나, 현재는 주머니 뒷가에 다는 작은 배지로 대체됐다. 대부분의 육군 및 소수 국직부대 비육군의 경우 전투복과 야전상의 등에는 좌측 상완 부분에 소속부대의 마크를 부착하는 것이 가장 일반적이다.



[그림 1] 전투복용 부대마크(좌)와 부대배지(우)

부대마크는 본디 컬러풀한 원색이지만, 2005년부터 위장효과 증가를 이유로 정복과 근무복 및 비행복용 마크는 현행을 고수하되 전투복용은 흑색/녹색 위주의 저시인성 마크로 바꾸기 시작하였다. 신형 디지털 무늬 전투복으로 바뀌면서, 일부 부대는 녹색 계열 저시인성 마크를 배색에 어울리게 혹은 보다 위장성을 높이기 위해 검정색 계열로 바꾸기도 했다.



[그림 2] 원색 부대마크와 위장색 부대마크 비교

## 2-2. 부대마크의 기원

군의 부대마크의 기본 기능은 아군과 적군을 식별하

고, 소속을 알리는 것이다. 이는 과거 중세시대부터 사용하였던 엠블럼과 그 역사를 같이 한다.

자동차 로고라든지, 옛날 귀족 가문의 문양이라든지, 패션 아이템으로도 쓰였던 ‘엠블럼’은 중세 시대 기사들의 방패에서 유래한 것이다. ‘엠블럼(Emblem)’이란 용어 자체는 ‘사물을 담은 용기나 방패들에 조각조각 장식을 새겨 넣는다.’는 의미인 그리스어 ‘엠블레마(Emblema)’에서 나온 말이다.

12세기 무렵, 유럽에서 전쟁이 벌어졌을 당시 전쟁에 나간 기사들은 머리에 쓴 투구로 인해 시야가 좁아져 누가 누구지 알아보기 힘들었고, 그로 인해 어쩔 수 없이 방패에다가 적군과 아군을 구별할 수 있는 문양을 그려 넣기 시작했다.

이것이 요즘 빈번하게 사용되고 있는 ‘엠블럼’의 시초였으며, 특정 가문이나 단체를 상징하는 마크=문장(紋章)이란 단어는 영어로 군대 무기(방패)를 뜻하는 ‘coat of arms’로 쓰이기도 한다.

중세 유럽에서의 전투 시 ‘적군과 아군을 손쉽게 구별하기 위해 새겨 넣기 시작한 엠블럼(Emblem)’은 각 부대의 특징이나 병사들의 계급을 나타내기 위한 용도로도 사용되었다. 그렇게 ‘엠블럼’이 전투 부대에서 유래한 관계로, 중세 시대의 로고(엠블럼)들을 보면 강인한 ‘힘’을 상징하거나 상대방에 대한 ‘정복’의 의미를 갖는 독수리나 사자 문양이 유난히 많았다.

하지만 역사의 흐름에 의해, 전쟁 방식도 점점 진화하게 마련이다. 새로운 무기가 발명됨에 따라 그런 류의 ‘기사’는 존재 의미가 없어지게 되었으며, 이후 중세 기사들의 ‘방패’에 쓰였던 엠블럼은 점점 ‘왕족이나 귀족들의 필요에 의한 상징물’로 변모해 갔다. 옛날 소설이나 순정 만화 같은 걸 보면, 이런 종류의 문장(紋章)이 특정한 사건이 나오는 해당 이야기들의 중요한 단서로 등장하기도 했었다. 그 후 시민 세력이 등장하고 왕족이나 귀족이 몰락하게 되면서 이 ‘엠블럼(로고=문장)’은 권위의 상징보다는 장식으로서의 기능이 부각되었고 ‘건축물, 유니폼, 자동차, 깃발, 특정한 조직의 표징, 와인이나 맥주와 같은 상품 라벨, 생활약세서리...’ 등에서 골고루 사용되기 시작했다.

## 2-3. 육군의 사단별 부대마크

본 항에서는 육군의 42개 사단별 부대마크의 형태와 의미를 설명하였다. 각 부대별 홈페이지에 게시되어 있는 자료를 활용하여 정리하였다.

[표 1] 사단별 부대마크

사단	부대마크	설 명
1사단 (49.5.1)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심장형 : 국가의 중추적 역할 상징</li> <li>•‘1’ : 제1사단을 표현</li> <li>•적색 : 철석같은 단결과 충성심</li> <li>•황색 : 민주주의 수호, 평화 애호</li> <li>•청색 : 청순, 영원무궁한 국가의 방패</li> </ul>
2사단 (49.5.12)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원형 : 우주만물의 근원, 화합단결</li> <li>•청색(외) : 조국 수호</li> <li>•백색(원) : 백의민족</li> <li>•적색 : 청년의 기백, 젊은 혈기</li> </ul>
3사단 (49.5.12)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3각형 : 3개 보병연대의 전투의지</li> <li>•3개 별 : 별과 같이 영원한 조국 발전</li> <li>•청색 : 청결, 순수</li> <li>•백색 : 백의민족, 평화</li> </ul>
5사단 (49.5.12)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원형 : 단결, 완전무결</li> <li>•‘5’ : 열쇠를 ‘5’로 표현, 제5사단</li> <li>•적색 : 정의, 정열, 명예</li> </ul>
6사단 (49.5.12)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6각형 : 제6사단</li> <li>•푸른별 : 백의민족 수호, 자유와 평화</li> <li>•백색 : 배달민족, 순결, 청백</li> </ul>
7사단 (49.6.2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청색(원) : 우주</li> <li>•청색 : 평화</li> <li>•7개 별 : 우주 중심, 무인의 기개, 승리</li> </ul>
8사단 (49.6.2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오독이 : 제8사단</li> <li>•노랑색 : 평화, 화합, 단결</li> <li>•적색 : 충성, 정열, 패기를 가진 부견 상립의 기백</li> </ul>
9사단 (50.10.25)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백마 : 백마고지 전투의 감투정신 계승</li> <li>•청색 : 평화와 희망, 우국충정</li> <li>•3등분 백색선 : 평화수호 정신, 단결력</li> </ul>
11사단 (50.8.27)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방패 : 조국수호 의미</li> <li>•백색 선 2줄 : 숫자 11을 표현</li> <li>•청색 : 정의, 평화의 상징</li> <li>•백색 : 백의민족</li> </ul>
12사단 (52.11.8)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백색방패 : 백의민족을 수호하는 방패</li> <li>•청색 6각 : 창공과 평화를 상징</li> <li>•적색 6각 : 광명과 강인한 보병 상징</li> <li>•청색과 적색의 육각을 합한 12각은 12사단을 상징</li> </ul>
15사단 (52.11.8)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적색원형 : 태양, 사단의 용맹성</li> <li>•청색원 : 자유와 평화</li> <li>•황색원 : 보름달, 무궁한 번창</li> <li>•십오야 보름달이 15사단을 상징</li> </ul>

[표 1] 사단별 부대마크

사단	부대마크	설 명
17사단 (55.5.7)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방패 :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li> <li>•청색 : 온화함, 평화수호</li> <li>•적색 : 공격정신, 정열</li> <li>•번개 : 17사단 상징 •검 : 정의, 충성</li> <li>•사선 : 신속한 기동으로 적 격멸</li> </ul>
20사단 (53.2.9)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원형 : 단일 배달민족</li> <li>•청색 : 자유, 평화</li> <li>•적색 : 열정, 충성심</li> <li>•방탄헬멧 : 조국수호</li> <li>•화살표 : 결전기동</li> <li>•원형(궤도) : 기계화부대</li> </ul>
21사단 (53.1.15)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청색(원) : 우주</li> <li>•백색(원) : 6대주의 단결</li> <li>•산 : 통일외지(백두산, 금강산, 한라산)</li> <li>•3개의 산은 모두 7자를 표현함으로써 제21사단을 표현</li> </ul>
22사단 (53.4.21)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외형 : 평화의 종을 상징</li> <li>•내부 백색숫자 : 제22사단을 표현</li> <li>•청색 : 통일 염원, 평화 상징</li> <li>•방패 : 완벽한 철벽방어</li> </ul>
23사단 (75.8.1)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녹색 : 조국 산하의 평화 기원</li> <li>•청색 : 동해바다를 의미, 조국의 발전</li> <li>•숫자 23 : 23사단을 상징</li> <li>•오각형 : 화랑정신(충효예지신)</li> </ul>
25사단 (53.4.21)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숫자 25 : 25사단을 상징</li> <li>•녹색 : 평화와 이상을 표현</li> <li>•백색 : 단일민족, 백의민족의 순결</li> <li>•외곽선 : 철통같은 방어진</li> <li>•적색(해) : 막강한 화력, 뜨거운 열정</li> </ul>
26사단 (53.6.18)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황색(달) : 자유와 평화 수호</li> <li>•청색(하늘) : 젊은 기상, 밝은 정신</li> <li>•2색7각 : 제27보병사단 상징</li> </ul>
27사단 (53.6.18)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이기가 : 백절불굴, 백전백승의 신념</li> <li>•적색 : 정열, 충성심</li> <li>•내부도안(좌회전) : 영원불멸</li> </ul>
28사단 (53.11.18)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바깥원 : 견적필살, 천하무적의 총구</li> <li>•청색 : 정의와 평화</li> <li>•백색 : 자유와 백의민족</li> </ul>
30사단 (55.2.22)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심장형 : 상부의 3자는 백두산, 허부원형은 0자와 행주산성 상징</li> <li>•백색 : 인화단결, 희생정신 상징</li> <li>•적색 : 필승부대로서의 의지, 왕성한 돌격정신 영광의 승리 쟁취</li> </ul>

[표 1] 사단별 부대마크

사단	부대마크	설 명
31사단 (55.2.2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방패 : 수호 및 방호</li> <li>• 녹색 : 생명과 풍요를 수호</li> <li>• 청색 : 서남해안선 철통경계</li> <li>• 백색 : 백의민족의 순수성과 평화의 염원</li> <li>• 주황색 불꽃 : 빛고를 광주의 상징색, 숫자 31을 불꽃모양으로 형상화하여 조국수호 의지와 열정을 표현</li> </ul>
32사단 (55.3.2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방패 : 국토를 수호하는 국군의 위용과 방패를 의미</li> <li>• 청색비탕 : 깨끗한 자연 우주를 의미</li> <li>• 백색외곽 : 깨끗하고 정의로움</li> <li>• 2개의 별 : 남극성과 북극성을 상징하며 2자를 표시</li> </ul>
35사단 (55.4.2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한반도 형상 : 32사단의 3자 의미</li> <li>• 3개의 방패로 구성된 삼각형 : 삼천리 조국 상징, 청색은 평화를 상징</li> <li>• 3개의 방패와 중앙의 적색 : 정열과 충성으로 조국통일 상징</li> <li>• 3개의 방패 : 3을 뜻하고 별은 5를 표현하면서 제35사단을 상징</li> </ul>
36사단 (55.4.2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자색비탕 : 영원불멸의 삼천리 강토 대한민국을 의미</li> <li>• 삼원육각 : 36사단 상징</li> <li>• 삼원 : 사단의 철통같은 방어태세 의미</li> <li>• 육각 : 세계 6대주 및 사방팔방으로 뻗어가는 기상 표현</li> </ul>
37사단 (55.5.2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황색문자 : 3개의 7자로 제37사단 상징, 지휘관을 중심으로 단결된 부대를 의미</li> <li>• 바탕청색 : 정의에 불타는 군인정신과 단결된 부대의 전투력을 상징</li> </ul>
39사단 (55.6.2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감청색 : 유구한 역사와 평화수호 상징</li> <li>• 외부 백색선 : 철통같은 향토방위와 백의민족을 의미</li> </ul>
50사단 (55.6.2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파도형상 : 39상징, 불굴의 정신 의미</li> <li>• 백색내부 : '5와 0자, 제50사단을 표현</li> <li>• 중앙의 V자 : 승리(Victory)를 상징</li> <li>• 적색선 : 필승의 신념을 상징</li> <li>• 방패 : 수도권 방어를 상징</li> </ul>
51사단 (75.3.1)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녹색 : 내륙 방어를 상징</li> <li>• 청색 : 해안경계를 상징</li> <li>• 백색 : 경계 및 필승의 신념</li> <li>• 내부도형 : 51사단, 한반도 지형 상징</li> </ul>
52사단 (78.11.15)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방패 : 책임지역 수호</li> <li>• 내부 삼각도형 : 52사단 표현</li> <li>• 삼각 : 군, 관, 민 통합, 단결의지</li> <li>• 화살 : 필승의 기상</li> </ul>

[표 1] 사단별 부대마크

사단	부대마크	설 명
53사단 (82.8.16)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청색 : 충성심과 애국심</li> <li>• 백색 : 백의민족의 단결과 철통같은 방어선을 뜻함.</li> <li>• 삼각 : 부산은 우리나라의 주춧돌 역할</li> <li>• 내부도안 : 53사단 표현, 한반도 및 북진 표시</li> </ul>
55사단 (75.9.1)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방패 : 책임지역 수호</li> <li>• 내부도형 : 햇불과 55사단 상징</li> <li>• 적색 : 정열</li> <li>• 황색 : 광명</li> <li>• 백색 : 백의민족의 무궁한 발전</li> </ul>
56사단 (75.8.1)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방패 : 수도서울 핵심부분을 방어</li> <li>• 성곽 : 자유 민주주의 질서를 수호하는 난공부락의 견고성</li> <li>• 대검 : 정의 수호, 지상전에서의 승리</li> <li>• 숫자 56 : 56사단 상징</li> </ul>
60사단 (75.8.1)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녹색 : 평화와 단결</li> <li>• 방패 : 수도 서울 사수</li> <li>• 화살표 : 공세적 진취적 기상</li> <li>• 황색 도형 : 60사단을 표현</li> </ul>
61사단 (77.10.1)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숫자 : 61사단을 의미</li> <li>• 모형 : 전 장병 일치단결과 으뜸</li> <li>• 청색 : 평화수호 및 청운의 기개</li> <li>• 백색 : 청령결백과 고결한 충성심</li> </ul>
65사단 (77.10.1)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숫자 6, 5각형 : 65사단 상징</li> <li>• 5각형 : 국토방위를 상징</li> <li>• 황색 : 싸우면 승리하겠다는 필승의지</li> <li>• 청색비탕 : 보병사단과 부대원의 단결</li> </ul>
66사단 (77.10.1)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청색 : 젊음과 용기, 기백을 의미</li> <li>• 백색 : 백의민족, 슬기, 지혜 의미</li> <li>• 2개의 육각형 : 서로 손을 맞잡고 서있는 조화로운 모습으로 부대단결 표현</li> <li>• 육각형 내부 : 심장의 의미</li> <li>• 육각형 외부 : 66보병사단 의미, 햇불 상징</li> </ul>
71사단 (75.8.1)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외곽방패 : 책임지역 수호</li> <li>• 주황색 : 인간의 활맥, 존엄성/때기 상징</li> <li>• 흰색 테두리 : 백의민족, 대한민국을 상징</li> </ul>
72사단 (81.9.25)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적색(사자) : 7자(승리의 탑), 진취성, 무한한 발전</li> <li>• 황색(소총가늌자) : 초전격멸의 의지, 부대의 단결(원)</li> <li>• 청색(방패) : 책임지역(수도권) 수호</li> </ul>

**[표 1] 사단별 부대마크**

사단	부대마크	설 명
73사단 (81.9.25)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방패 : 조국수호</li> <li>• 파란색 : 평화</li> <li>• 백색선 : 지휘관을 중심으로 단결</li> <li>• 한반도 : 73사단 형상화</li> <li>• 붉은색 : 복진통일, 공격기세</li> </ul>
75사단 (83.7.1)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외부3색원 : 태극 회오리를 바탕으로 한 평화, 충성, 통일 상징</li> <li>• 내부색(주황) : 용맹, 희망</li> <li>• 철마장군상 : 싸워 이기는 철마부대 상징</li> </ul>
수도 기계화 사단 (49.6.2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방패 : 국가방위</li> <li>• 포효하는 호랑이 : 용맹(비호부대)</li> <li>• 매서운 눈 : 정열(번개부대)</li> <li>• 붉은 혀 : 화력(포병여단)</li> <li>• 녹색바탕 : 희망(해산진부대)</li> <li>• 백색둘레 : 정의(영원한 단결)</li> </ul>

### 3. 부대마크의 디자인적 요소 분석

42개 사단별 부대마크 자료를 수집한 결과, 다양한 형태와 의미를 느낄 수 있었다. 이제부터 이렇게 수집한 자료를 바탕으로 부대마크를 보다 구체적으로 분석해 보겠다.

부대마크의 디자인적 요소 분석의 내용에는 크게 기호유형, 형태, 소재, 색상, 그리고 시간적 흐름에 따른 변화 등 5가지 기준으로 나누어 분석한 것이 반영되어 있다. 기호유형 분석에는 부대마크를 퍼스의 기호유형 3가지 분류기준으로 분류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고, 형태 분석에는 기본적인 형태 구조를 검토한 내용이 들어 있다. 그리고 부대마크별 표현대상에 대한 소재는 구체적으로 무엇인가 등에 대한 분석이 포함되어 있다.

색상별 내용에는 각각의 부대마크 색상으로 어떤 색상을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지에 대한 분석결과가 반영되어 있고, 마지막에는 부대마크들이 생성된 일자 별로 나열하여 기호유형, 형태, 소재, 색상들이 어떠한 흐름으로 변화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알아보았다.

#### 3-1. 기호유형 분석

기호유형 분석에서는 퍼스의 기호학적 유형분류 기준을 활용하여 부대마크를 도상형, 지표형, 상징형으로

분류해 보았다.

아래의 분석표와 같이 우리나라 사단별 부대마크는 해당 부대와 물리적 유사성이 없는 상징성 강한 부대마크가 전체의 52.8%로 22개 부대가 사용하고 있다. 부대와 관련이 있는 구체적인 이미지를 사용한 도상형과 부대의 명칭을 직접적으로 표현한 지표형의 부대마크는 각각 10개 부대씩 23.8%로 나타났다.



**[그림 3] 부대마크 기호유형별 분류**

#### 3-2. 형태 분석

형태별 구조에서는 각각의 부대마크의 기본적인 형태를 기준으로 분류하였다. 이에 따라 방패형 구조가 17개 40.4%, 원형 구조가 14개 33.3%, 삼각형과 오각형 구조가 각각 2개 4.7%, 그 외에 분류가 모호한 구조가 7개 16.9%로 나타났다.



**[그림 4] 부대마크 형태별 분류**

#### 3-3. 소재 분석

소재별 분석 내용은 부대의 상징을 직접적으로 나타내기 위하여 사용한 소재가 무엇인가를 기준으로 분류하였다. 부대의 명칭을 직접적으로 나타내는 숫자를 활용

한 부대마크가 15개 35.7%로 가장 많았고, 자연물이 12개 28.6%, 도형 9개 21.5%, 인공물과 동물이 각각 3개씩 7.1%로 나타났다.

숫자, 글자 (15)	자연물 (12)	도형 (9)	인공물 (3)	동물 (3)

[그림 5] 부대마크 소재별 분류

### 3-4. 색상 분석

색상 분석 내용에는 부대마크의 색상으로 어떤 색상을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가를 중점적으로 다루었다. 부대마크 색상은 모든 부대가 2개 이상의 색상이 사용되어 우선 느껴지는 색상을 기본 색상으로 설정하여 분석하였다. 청색을 사용한 부대마크가 23개 54.7%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적색 6개 14.3%, 이어서 노란색과 녹색이 5개씩 11.9%, 가장 적은 주황색이 3개 7.2%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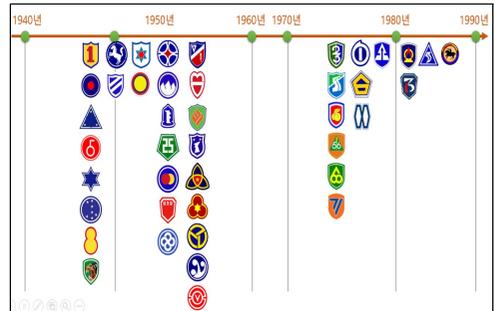
청색 (23)	노란색 (5)	적색 (6)	녹색 (5)	주황색 (3)

[그림 6] 부대마크 색상별 분류

### 3-5. 시간적 흐름에 따른 변화 분석

여기서는 시간적 흐름에 따라 부대마크들이 어떻게 변화하였는지에 대해 분석하였다. 각각의 부대마크가 생성된 일자를 기준으로 연도별로 나열하여 나타내었다.

아래 그림을 보면 과거 1960년 이전에 생성된 부대마크들에서는 특별한 규칙이나, 동일한 성질을 유추할 수 없었다. 그러나 1970년 이후에 생성된 부대마크들의 경우 숫자를 이용해 부대 명칭을 직접적으로 나타내는 지표형이 많다는 것을 알 수 있었으며, 형태적인 면에서는 방패형의 부대마크가 많은 비중을 차지함을 알 수 있었다.



[그림 7] 시간적 흐름에 따른 변화 분류

## 4. 부대마크의 의미와 디자인 상관관계 분석

본 장에서는 앞에서 분석한 내용을 토대로 어떠한 의미가 내포되어 있는지에 대한 내용을 작성하였다.

첫째 기호유형 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상징형이 절반이 넘는 50%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이는 부대마크를 부대를 외부환경에 직접적으로 표현하는 수단이라고 보는 부대별로 추구하는 가치관이나 이념을 담아서 이를 부대원들에게 깊이 전달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둘째 형태 분석 결과에서는 방패형과 원형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는 부대마크의 기원이 엠블럼에 있어 그 영향을 많이 받은 듯하다. 그리고 부대별로 부대마크 형태에 대해서 의미를 부여하여 사용하고 있었는데, 그 내용을 요약하면 아래 표와 같다.

**[표 2] 부대마크 형태별 의미**

구 분	의미
방패형	국가방호(83%), 경계지역(12%), 국가의 중추적 역할(5%)
원형	단결(19%), 방호(12%), 해(12%), 달(12%), 우주(12%), 근원(6%), 평화(6%), 하늘(6%), 충구(6%), 궤도(6%)
3각형	단결의지, 방어선, 삼천리 조국, 주춧돌, 3개 보병연대 전투의지
5각형	화랑정신, 방어진, 국토방위
6각형	사단명칭, 뺨어나가는 기상, 단결, 심장, 햇불

형태에 부여되는 의미를 분석해보았을 때 가장 많은 방패의 경우 방패가 주는 일반적인 이미지인 ‘방호, 방어’의 이미지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으며, 그 외 형태에서는 크게 주목할 만한 의미를 찾을 수가 없었다.

셋째 소재 분석 내용에서는 많은 부대들이 부대명칭을 직접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숫자를 많이 사용하고 있는 것 외 특별한 의미를 유추하기는 어려웠다.

넷째 색상 분석 결과에서는 청색을 절반이 넘는 23개의 사단이 사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그리고 색상에 대해서도 부대별로 의미를 담아서 사용하고 있었는데 그 내용을 요약하면 아래와 같다.

**[표 3] 부대마크 색상별 의미**

구 분	의미
청색	평화(37.5%), 청결(7.5%), 방호(7.5%), 정의(7.5%), 단결(7.5%), 젊음(7.5%), 용기(5%), 희망(2.5%), 온화함(2.5%), 충성심(2.5%), 애국심(2.5%), 우주(2.5%), 영원(2.5%), 조국발전(2.5%), 동해바다(2.5%)
백색	백의민족(46.8%), 단결(15.6%), 평화(9.3%), 순결(6.2%), 자유(3.1%), 희생(3.1%), 슬기(3.1%), 지혜(3.1%), 필승(3.1%), 충성(3.1%), 대한민국(3.1%)
적색	전투의지(30%), 경열(30%), 충성심(20%), 정의(3.3%), 막강 화력(3.3%), 영원불멸(3.3%), 발전(3.3%), 통일(3.3%), 단결(3.3%),
황색	단결, 평화수호, 번창, 광명, 필승, 따뜻한 마음
녹색	평화, 방호, 이상, 단결
주황색	인간의 활맥, 패기

공통적인 바탕색으로 사용한 백색은 주로 백의민족

을 뜻하는 것이었고, 청색과 녹색은 ‘평화’, 적색과 주황색은 ‘충성, 열정’, 황색은 단결을 뜻하는 것으로 많이 사용되고 있었다. 이런 색상별 의미를 고려했을 때, 육군의 사단들은 부대마크의 색을 통해서 백의민족과 평화라는 2가지 이념을 강하게 나타내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형태 분석 결과와 색상 분석 결과를 통해서 하나의 의미를 다양한 형태와 색상을 통해 나타냄을 알 수 있었다. 이에 [표 2]와 [표 3]에 제시된 의미들 중 육군의 추구 이념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있는 의미에 대해 주로 어떤 형태와 색상을 사용하였는지에 대해서도 정리해 보았다.

**[표 4] 부대마크 의미별 주요 형태/색상**

의 미	형태	색상
국가방호	방패형	청색
충성	-	적색, 청색
단결	원형	청색, 백색
자유·평화	원형	청색, 백색
필승의 신념	-	적색

다섯째 시간적 흐름에 따른 변화 분석에서는 1970년대 이후로 숫자를 이용한 지표형과 방패형의 부대마크가 많아짐을 알 수 있었다. 이는 부대마크를 부대 가치관과 이념을 담아 소속감을 주기 위한 수단에 더해 부대원들의 소속을 타 부대원 및 일반인들에게 알리기 위한 기능도 강화되고 있다는 것과 형태적인 면에서는 과거 엠블럼 형식의 전통적인 안정성과 보편성을 추구하고 있다는 것을 유추할 수 있었다.

## 5. 결론

본 연구를 통해서 육군의 42개 사단에서 사용하고 있는 부대마크들이 기호유형, 형태, 색상 면에서는 어느 정도의 경향을 나타내고 있었으나, 전체적인 통일감은 부족하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육군에도 구성원 전체가 함께 추구하는 동일한 이념, 가치관인 육군목표(4개항), 복무신조(4개항), 육군 5대가치관(충성, 용기, 책임, 존중, 창의)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러한 이념과 가치관들이 부대마크에 반영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 현재 유명 기업들의 CI와 비교했을 때 많이 아쉬움이 남는 부분이다.

육군의 부대마크는 기업의 CI와 같이 홍보를 통해 이익을 창출하는 수단은 아니지만, 대내적으로는 소속감을 고취시키고, 대외적으로는 홍보를 통한 군의 대국민 신뢰도를 높이는 용도로 활용되는 측면에서 보았을 때 중요한 것임을 모두가 인식하고 있다.

그리고 육군은 시대적 흐름에 맞추어 2014년 발표한 국방개혁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변화하고 있다. 그 내용 중에는 사단급 부대가 사라지고 사단보다 하위급 부대인 여단급 부대의 형태로 변경된다. 이에 따라 기존에 사용하던 부대마크의 변화도 불가피한 실정이다.

이런 상황을 고려했을 때 현재 사용 중인 육군의 부대마크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다시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번에 식별된 육군의 이념과 가치관이 반영되어 있지 않은 의미적인 면과 타 부대(군) 및 일반인들에게 쉽게 인지될 수 있도록 하는 기능적인 면을 함께 고려해서 보다 나은 부대마크로 개선해 나가야 할 것이다.

## 참고문헌

1. 디자인 기호론, 박영원, 청주대학교출판부, 2001년
2. 김성민, 한국의 대학 심벌디자인에 관한 연구, 국민대학교, 2005년
3. 이소연, 기호학적 접근에 따른 심벌마크의 커뮤니케이션 기능성에 관한 연구, 홍익대학교, 2003년
4. <https://namu.wiki/w/>
5. <http://prorok.tistory.com>
6. <http://www.newdaily.co.kr>